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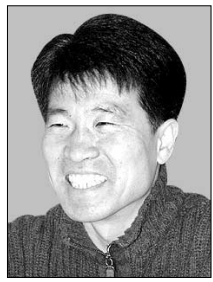
불교생태철학을 주제로 다룬 첫 박사 학위 논문이 동국대에서 나왔다. 지금까지 학술지 등에 발표된 단편적인 논문은 많았으나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인데다, 동국대가 불교생태철학으로 특성화를 추진하는 마당에 나온 것이어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동국대 선학과 서재영 씨는 <선(禪)의 생태철학 연구>에서 선(禪)사상의 생태학적 측면을 집중 조망, 이로부터 불교생태철학의 사상적 근거를 마련하고 생태위기에 대한 불교적인 대안을 모색했다.

이 논문은 "생태학과야말로 생명에 대한 어떤 범죄행위보다 심각한 위협이며, 이에 대한 해답을 불교생태와 지구를 최고의 실천윤리로 삼는 불교가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출발한 연구 결실이다.

서 씨에게 불교생태철학은 불교의 현재적 의의를 확인하는 작업이기도 했다. "현대의 담론에 동참하고 사상적 원천을 제공함으로써 불교가 더 이상 '과거의 전통'이 아닌 '살아 기어'하는 본래적 전통으로 돌아감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서 씨는 생태위기의 불교적 대안을 선사상에서 찾았다. 선사상에는 "초기불교 사상이나 불교일반의 교의에 담긴 내용들보다 훨씬 풍부한 생태적 전통이 내재돼 있기 때문"이다. 선사상에는 생명의 위계성이 나타나지 않고 초목성불(草木成佛), 무정



서재영씨

생생하게 녹아 있기 때문이다. 선사들 삶 속에서 동물들은 반러자로 인식되고, 법을 설하는 주체로서 절대적 존엄성을 갖는 존재로 간주된다. 영명연수 스님(永明延壽·904~975)이 하루 한 끼의 공양을 하며 60일만에 <법화경>을 암송하자 염소

하게 담겨 있는 선어록의 설화를 근거 텍스트로 삼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해 서 씨는 "선사의 행장 가운데 이 같은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선종 사유 속에 인간과 동물은 도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자연에 절대적 존엄성을 부여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며 "개인의 설화가 아닌 선종의 인식체

## 선사들의 자연인식 불교생태철학 근간

서재영씨 '선의 생태철학 연구'로 박사 학위  
"모든 존재는 인간과 동일한 법성 지녀"

설법(無情說法)과 같이 무정물에까지도 생명력을 부여하는 등 생태학적 사유가 풍부하게 담겨 있다는 것.

이와 관련된 근거를 서 씨는 <능가사 자기>를 비롯해 <경덕전등록> <조당집> <조주록> <백장록> 등의 선전(禪典)에서 찾아냈다. 선어록에는 선사들의 자연과 공존하며 소욕지족(所欲知足)하는 삶이

우리가 감동해 무릎을 꿇고 앉아 들었던 이야기나, 현사사비 스님(玄沙師備·835~908)이 제비 새끼 우는 소리를 들으며 "실상을 깊이 논하고 법음을 훌륭하게 설명 하는구나"고 말한 이야기 등이 그 예.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문화적 수사 내지는 상징이 풍부

다양성을 갖는다"고 말했다. 서 씨는 선사상의 자연관을 인간과 자연이 둘이 아니라는 불이사상으로 요약하며 "대지와 자연의 모든 존재들은 인간과 동일한 법성을 지닌 존재라는 이 같은 인식은 자연과 인간이 도덕적으로 부당함을 주장하는 데 유력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생태철학에서는 실천의 문제를 중요하게 논하면서 미처 다루지 못해 아쉽다는 서 씨는 앞으로 옛 선사들이 보여준 소욕지족하는 삶을 재해석해서 현대인들이 구체적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연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익순 기자 ufo@buddhapia.com

## 전통사찰 건축의 변천사 한눈에 파악되네

한동수 교수 '불교건축' 포스터 제작

법사상 팔상전과 금산사 미륵전 가운데 어느 전각이 더 높을까? 국보 제11호 은혜사거조암극락전과 같은 맞배지붕 양식의 전각을 보려면 어디로 가야 할까? 사찰 전각에 관심 있는 이라면 한번쯤 가져볼 만한 질문들이다. 이 같은 궁금증들을 단번에 해소할 수 있는 포스터가 최근 제작됐다.

수석사 대웅전, 봉정사 극락전 등 대표적인 불교 고건축물 인연도(불단을 향할 때 보이는 정면을 정리해 도표화한 포스터 <한국의 전통건축-불교건축편>)이 그것. 한양대 한동수 교수가 동아시아건축역사연구소와 함께 제작했다.

조계종성보문화재위원회도 한 한 교수는 "1960년대 이후 많은 실측조사가 이뤄져 왔으나 이에 대한 정리는 미흡했다"고 판단, 일목요연하게 조망할 수 있는 포스터를 제작하기로 이르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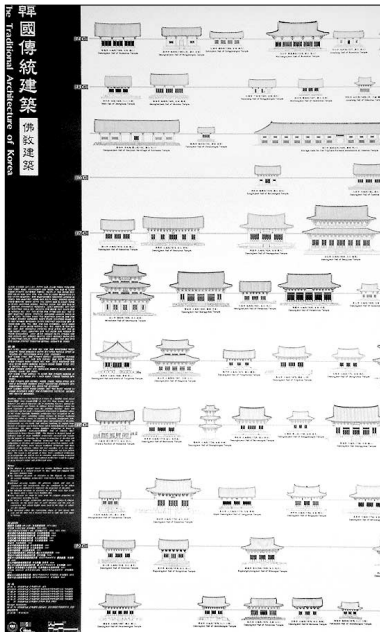
포스터는 전지 사이즈 두 장으로 구성됐다. 한 장은 주요 전각 58점의 입면도를 연대순으로 배치해 건축양식 변천의 흐름을 읽을 수 있게 했고, 다른 한 장은 지붕

양식 순으로 배열해 전각들 간의 지붕양식 비교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동일한 척도(1/300)를 적용했기 때문에 입면도만으로 전각들의 실제 크기를 가늠하고, 서로 비교할 수도 있다.

시각 자료인 만큼 텍스트 중심의 상세한 설명은 생략했다.

포스터에 수록된 58개의 전각은 △창건·중창 연대가 명확할 것 △국보 또는 보물일 것 △신뢰성 있는 실측도면 확보가 가능할 것 등의 기준에 의거 선정됐다. 실측도면은 문화재청이나 국립문화재연구소 등을 통해 구했으며, CAD로 제작돼 있지 않은 도면은 일일이 스캔해서 수정 작업을 거쳤다.

작업하는 데 가장 어려웠던 점은 재정 문제. 여러 곳에 도움을 청해왔지만, 해결책이 없어 자체적으로 비용을 조달했다. 자비를 부담하면서까지 이 같은 작업을 해야 했던 이유에 대해 한 교수는 "고건축은 용어가 어려워 전문가가 돼야 이해하는 데다 일상생활과 유리된 건축물이다 보니 일반인이 쉽게 다가가기 어렵다는



한동수 교수가 펴낸 포스터 첫째 장. 주요 전각의 변천사가 한눈에 들어온다.

점이 안타까워 만들게 됐다"며 "문화재 이해를 돕기 위한 이 같은 작업이 다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02)2290-0319

박익순 기자

무형문화재 자료목록 간행

조계종 문화부 조사

불교 관련 중요무형문화재에 관한 자료를 정리한 <불교무형문화재 자료목록>이 조계종 문화부에서 최근 발간됐다.

자료집에 따르면 불교관련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품목은 무용 분야에서 제27호 승무, 의식 분야에서 제50호 영산재, 제68호 밀양 백중놀이, 공예기술 분야에서 제48호 단장장, 제74호 대목장, 제108호 목조각장 등이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전승자는 33명이며, 전승조교는 13명이라는 것으로 밝혀졌다.

<불교무형문화재 자료목록>은 문화재청이 발간한 <중요무형문화재현황>, <무형문화재조사보고서>등을 참조해 작성했으며 '불교관련 중요무형문화재 현황과 일람' '불교무형문화재 목록' '불교무형문화재 참고문헌' 등으로 구성됐다.

조계종 문화부는 "지금까지 조계종이 불교무형문화재에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자료를 기초로 보다 많은 불교무형문화재를 적극 발굴하는 한편, 기능보유자를 양성함으로써 불교 전통문화 육성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 박영준 교수의 과학 기술과 불교 <2>

물의 과학과 다르마

영어사전에서 m자를 찾아보자. 수 천 년 전, 지금의 이라크 지역에 살았던 셈족이 사용하던 물 흐르는 모양한 자의 水와 비숫의 글자가 라틴어에서 m으로 변했다고 설명되고 있다. 조지훈 시인이 지은 <한국문화사 서설>은 우리말의 연원이 셈족에 있다고 밝히고 있다.

물과 관련 있는 단어 가운데 m자로 시작하는 단어가 많다. 예를 들어 우유를 milk, 포유동물이 mammal, 그리고 사람을 man이라고 하고, 금강경 12장 '존중경교본'에서 천인, 인간, 아수라 중 인간은 산스크리트어 manu를 한자로 번역한 말이다. 더욱 재미있는 것은, 우리말 물, 마음, 엄마 또한 m발음이라

예를 들어, 얼음이 되면 빈공간이 늘어나서 얼음이 뜨게 된다. 빙산이 물에 뜨지 않았다면, 아마 생명은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태양에서 오는 빛 에너지가 다시 방사하지 못하게 되면, 지구는 너무 뜨거워지기 때문이다. 생명을 유지하는 것, 아픔을 느낄 수 있는 것, 심지어 생각할 수 있는 것 또한 물의 묘한 작용 때문임을 상상할 수 있다.

부처님께서 45년간 설법하신 장소가 주로 강가이며, 경전에는 강가에 대한 비유가 많이 등장한다. 금강경에서도 남에게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공덕을 강가의 모래를 비유한다. 또한 진리의 세계로 가는 법을 뗏목에 비유하고, 건넌 후는 뗏목 또한 버려야 하는 것

## 물은 생명의 탄생과 보호에 절대적 존재 삼라만상 멈춤없이 흐르는 도리를 알자

는 점이다. 인간은 날 때부터, 이 m자와 함께 인생을 시작한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시사주간지 <타임즈>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영어권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영어단어가 mother며, 일본사람은 오마상, 독일 사람은 무터라고 한다. 바로 이 m자가 흐르는 물을 상징한다는 것은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 물은 66%정도가 물로 되어 있다. 현대과학은 물이야말로 가장 요묘한 생명을 탄생시킨 장본인임을 여러 각도에서 이해하고 있다. 물의 가장 중요한 과학적 성질은 물을 이루고 있는 분자, 즉 H2O가 어떻게 서로 연관되어 있는가에 의해서 결정된다. 컵의 물은 차 있는 듯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빈 공간이 많다. 물 분자는 수소결합이라는 힘 때문에 서로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한다. 이러한 성질이 물이 가지는 온갖 요묘한 성질을 연출해 낸다.

또한 자주 만나는 말씀이다. 이와 같이 강과 물 등이 불교 전체를 흐르는 중요한 테마임을 알 수 있다.

다르마란 부처님 법을 나타낸다. 불자들이 항상 외우는 네 가지 서원에 따른 오마상, 독일 사람은 무터라고 한다. 바로 이 m자가 흐르는 물을 상징한다는 것은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 물은 66%정도가 물로 되어 있다. 현대과학은 물이야말로 가장 요묘한 생명을 탄생시킨 장본인임을 여러 각도에서 이해하고 있다. 물의 가장 중요한 과학적 성질은 물을 이루고 있는 분자, 즉 H2O가 어떻게 서로 연관되어 있는가에 의해서 결정된다. 컵의 물은 차 있는 듯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빈 공간이 많다. 물 분자는 수소결합이라는 힘 때문에 서로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한다. 이러한 성질이 물이 가지는 온갖 요묘한 성질을 연출해 낸다.

서울대 전기공학부



그림 : 문병성

NSF SAMSUNG 2억 원 정부 출연 연구개발사업

**이것이 명품이다!**

명품은 말하지 않습니다. 심마니 토종오가피는 산삼매약근이 함유된 제품으로써 그 효과와 품질로 말합니다.

**심마니 토종오가피 시음 무료체험**

전화주시면 일천분에 한하여 심마니 토종오가피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무료체험의 즐거움과 건강의 기쁨을 누리보세요.

**심마니 토종오가피**

중년의 건강과 활력을 부모님에게는 건강한 노후를 자녀에게는 몸과 정신을 튼튼하게 가족 건강이 행복의 최우선입니다. 심마니 토종오가피가 지켜드립니다.

상담문의 및 무료자료배송 02)455-1114

이우원F&B HYUN PUNG F&B CO., LTD.

**말과 문자와 형상에 붙어있지 않고 대 자연에 감춰진 부처찾아 견성도통하는 법**

지구촌지각이 변동되는 UR시대에 도통군자, 사명자 초능력자 되소서

앞서가는 도통군자만이 살아갈 수 있는 2005년 UR시대 도전 학력·경력·남녀노소, 연령 초월 유망직종 사명성사 진인 대법회

선천법도는 드러나지 않게 전했고 후천바둑달 마도법으로 시작되는 양 2월 4일 자시와 5일 오시에 경신일이 들어 지구촌 모든 종교문화가 바뀌는 종교시대에 새로운 마름달마 진법으로 천문도법인 초능력 도통비법을 경신입문한 공덕으로 평상시 수년을 수행한 공덕보다 더 큰 힘을 얻는 법회에 그대를 초대하며 동참한 모든이들에게 특별 문부 달마 선물을 드립니다. (부자되는 돈부달마)

**진인경신도통 비법에 천하의 비밀이 다 들어있다.**

- 당신은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무엇을 고민하십니까?
- 치매, 중풍, 관절, 당뇨, 병, 혈압, 비만, 질병으로 부터 자신도 구하고 가족도 구하는 의통능력 직강 전수

2005년 을유년 UR 지구촌 개혁시대에 자신은 물론 가족과 중생을 구할 자 누구인가? 바로 당신인 것이다. 그 주인공은 경신입문하여 진광의 빛으로 인가 받은 당신이 주인공이며 인간에게는 누구나 삼시구중이 있어 육신에 병을 만드는 것을 경신일 자시와 오시에 진태양법으로 의통능력과 퇴치능력만이 삼시구중을 제도하므로 육경신도통회로 모든 종교법이 모아지는 것임을 명심할 지어다. 이 법으로써 도를 통하여 중생도 구하고 각종 종교의 중주도 된 것이며 오늘날 중생도 제도하는 것이다. 말법시대에는 너나 없이 도인 아님이 없으며, 말과 글과 입으로 통한 자와 알지 못하고 스승인양 도인인척 하는 자는 하늘의 도법으로 다스리는 시대가 오고 있는 것이다. 이 시대에 도통군자, 사명자만이 살아남을 것이요, 하늘빛 겉자와 귀신우두머리 무자에 귀의하여 중생들에게 기근에 맞는 경신도통으로 육신에 병, 정신에 병, 잠신에 병, 마음에 병을 제도하여 영가해탈법을 득도하여 새로운 윤리, 도덕 창생, 윤리관으로 사명자, 도통군자로 승화하라.

**을유년 입춘 대운맞이 경신대법회**

경신도통과 무극대도란 무엇인가, 운명을 조종하는 것이다

1)천안동 2)천이동 3)타심동 4)신죽동 5)수명동 6)진동 등이고 경신이 돌아오는 것은 60일, 1년에 6회가 들었으며 기도수행으로 수마, 병마, 색마를 이긴 자리인 만큼 모든 종교를 초월 생명이 있고 번식할 수 있는 자리는 모든 종교들이 이 수행으로 오늘을 제도하고 있는 신출귀몰한 비법으로 많이 배우지 않아도 단 한가지 수마만이 기면 득도하는 수행법이며, 이 기도는 천안통경이라는 그 누구도 도를 통할 수 없고 해박야 잠 안자는 잠신에 빙의되어 허송세월만하는 것이다. 이 기도는 일경 즉 천안통만 잘하면 전쟁, 금생, 내생을 넘나들 수 있으며, 내가 과거 사람 몸받은 모든 업장과 조상들이 못다이룬 것을 풀어줄 수 있는 기도중의 기도가 경신기도이며 자아완성은 물론 도통 신비의 기도 경신수행인 것이고, 사람이나 짐승이나 귀신들까지도 제도할 수 있는 초능력자 도통군자되는 비법인 것이다.

- 천도안된 조상들이나 잠신에 빙의된 영혼들이 경신일 자시와 오시에 해원상생 조화되거나 문수대동 성취
- 무박 2일 침시무료 제공 ● 교재: 평생연구자료 일금 5만원

**특별상담 일생대운, 직장, 운명 특별 상담**

- 입제: 양력 2005년 2월 4일 금요일 음. 12. 26 (해시)
- 해제: 양력 2005년 2월 5일 토요일 음. 12. 27 (해시)

021821-6622 / 821-7767 무박 2일 0161239-3110 / Fax 021821-7768 7호선 신대방삼거리역 하차, 2번출구 모자원고책 300m 동쪽구 약사골목

**웅조미륵달마 진인경신도통회 세계 불교 달마중충본산**